

행패 보다못해... 죽음부른 ‘남매의 비극’ ‘이혼다툼’ 경찰이 아내에 공포탄 쏘

누나가 폭력 휘두른 남동생 찔러

“극약 마시고 숨졌다” 혐의 부인

부모 없이 살아온 20대 여성이 허나뿐인 남동생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자해를 시도하며 행패를 부리는 남동생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윤모(여·2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1일 새벽 3~4시 사이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빌라에서 흥기로 동생(21)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부모처럼 키워준 80대 할머니에게 욕을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동생이 사건 당일에도 흥기를 들고 대들자 이를 빼앗아 찔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흥기에 찔린 동생을 방치하다가 숨을 거두자 11일 오후 3시께 후배 이모(여·21)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이씨의 설득으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자해를 하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흥기와 극약병이 발견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흥기에 찔린 동생이 곧바로 숨지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극약을 마시고 숨졌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극약병은 동생이 죽고 싶다며 사달라고 해 지난 10일 사다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 남매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가출한 뒤부터는 화순에서 사는 80대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전했다.

이후 남매는 광주에서 대학에 다니며 할아버지(84)의 재산을 관리하던 작은아버지(40)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원룸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동생은 지난해 허리를 다치면서 휴학한 뒤 입원치료를 받다가 한 달 전에 퇴원했으며, 윤씨는 최근 광주지역 모 전문대를 졸업·취직했다.

다가 동생 병간호를 위해 퇴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의 작은아버지는 경찰에서 “숨진 조카가 평소에도 누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가 심했다”며 “지난해 후배들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골절상을 입은 뒤부터는 심술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자꾸 행패를 부리고 부모처럼 키워준 할머니에게 욕해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극약 잔류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 윤씨가 “동생이 스스로 극약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강제로 먹였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고흥경찰, 경장 구속

고흥경찰은 12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고흥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이모(43) 경장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고흥군 모 미용실에서 아내 A(41)씨에게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탄피가 이마 부위를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장은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장은 이날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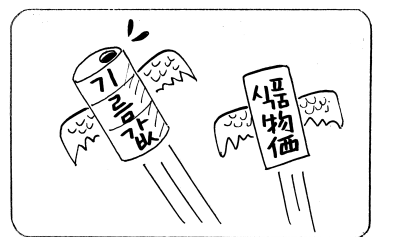
무중이었으며 이혼문제를 놓고 아내와 전화통화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운영중인 미용실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장은 경찰에서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형편 탓에 최근 부인과 다툼이 잦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장은 또 이날 “지난 9일 이혼소송 속려기간이 끝나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오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주작중기자 gjuu@

나원침 (8521) 김중두



용의자 몽타주 그릴 일 없네

CCTV 크게 늘어 지난해 20건 불과

꾸준히 늘고 있는 CC(폐쇄회로)TV가 범죄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몽타주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재우(46) 경위는 광주경찰에서는 유일하게 몽타주를 그리는 수사관. 1990년도에 경찰에 들어와 수사에서 간빠가 끊은 그는 지난 1999년부터 몽타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마다 그는 60여건의 몽타주를 작성했다. 하지만 최근 CCTV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몽타주 수요가 줄어 지난해에는 20여건만 그렸다.

또 올해는 지난 1월 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달 서구에서 발생한 '만취 30대 췌장기 사건' 등 단 2

건만 그쳤다.

두 사건 모두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고 목격자가 없어 이렇다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특히 췌장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용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는 사건의 '마지막 열쇠'는 몽타주라고 수사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 경위는 “피해자가 용의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경우에는 진술만 가지고도 몽타주를 그리지만 서구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면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중에 남은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사건을 재구성한다”며 “수사의 마지막 단서가 몽타주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몽타주 기법도 나날이 발전, 1990년대 중반께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실사에 가까운 몽타주가 만들어 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수백만원 건축자재 슬쩍

중학생 형제 등 셋 검거

수백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중학생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2일 공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최모(16)군 등 중학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최근 등에게

건축자재를 사들인 이모(61)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1월 10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최모(31)씨의 공장에서 철근을 훔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77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손문권 유족, 임성환에 소송

지난 1월 숨진 손문권 PD의 친가족 유족이 손 PD의 아내인 임성환 작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가 12일 방송했다.

손 PD는 드라마 ‘인어아가씨’ ‘신기생전’을 쓴 임성환 작가의 남편으로 임 작가와 함께 드라마 ‘아현동 마님’ ‘보석비빔밥’ ‘신기생전’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고향사람이네” 술 먹인뒤 강제 추행

○30대 택시기사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을 “고향이 같다”며 꼬드쳐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이 술에 취하자 은밀한 부위를 더듬었다가 경찰서행.

○1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유모(33)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A(여·27)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손님으로 태운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A씨의 고향이 자신과 같은 것을 알게 되면서 ‘동향 사람끼리 술을 한잔 하자’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귀띔.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관용차까지 잃어버린 여수시

시청 산림과 도둑 카메라 등 훔쳐가

여수마암경기장 내 여수시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도둑이 들어 업무용 카메라는 물론 산불감시용 관용차까지 훔쳐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여수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께 직원들이 출근해 보니 사무실 서랍 등을 뒤진 흔적과 함께 업무용 카메라 1대 등 일부 물품이 없어졌다. 직원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관용차 소렌토 1대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서랍을 뒤져 차량

키를 찾아내 훔쳐 타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전 2시 30분께 도난당한 소렌토로 추정되는 차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사무실 외곽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경찰은 산림과 사무실이 디지털 숫자기로 잠겨 있었던 점으로 미뤄 평소 자주 왕래하면서 안면이 있던 사람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여성이 맞아도 못본 체한 행인들

도심 강도행각 30대 덩치

도심 변화가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덩치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 금품을 빼앗은 김모(32)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두암사거리 한 상점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A(여·2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현금 3만원과 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총 73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수법의 전과가 몇 차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범죄피해를 입은 당시 주변에 상당수의 행인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박람회 납품 식품 위생 점검

12일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에 납품하는 오지동의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위생기준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 객실 -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히딩크관광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60-1번지
Tel. 227-8500 / Fax. 227-2159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정 서비스등록 제41-0187289

다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 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 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